

국내산 쌀, 해외 원조길 올라

군산항서 출항 기념식
예멘 1만2000톤
에티오피아 1만톤 등
2만2000톤 선적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라 개발도상국가의 긴급 재난 상황 발생 시 식량지원을 위해 국내산 쌀 5만톤이 군산항을 통해 해외 원조길에 올랐다.
시는 10일 군산항 5부두에서 예멘과 에티오피아로 보내질 우리 쌀 2만2000톤을 선적하고 출항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기념식에는 농식품부 차관과 WFP(세계식량계획국제기구) 본부 데이비드 비슬리 사무총장, 에티오피아 주한대사 쉬페르자소, 농해수위 국회의원, 강승구 농축수산물국장 등 원조 관련 기관 및 농업인 단체 관계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됐다.
올해 1월 우리나라가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함에 따라 국제기구인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우리 쌀



군산시는 10일 군산항 5부두에서 예멘과 에티오피아로 보내질 우리 쌀 2만2000톤을 선적하고 출항 기념식을 가졌다.

5만 톤이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지원된다.
이번에 지원되는 쌀은 예멘 1만2000톤, 에티오피아 1만 톤 등 총 2만2000톤으로, 6월 중순에 예멘 아덴항과 에티오피아 지부티항에 도착해

WFP(World Food Programme) 사무국을 통해 인도될 예정이다.
안창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처음으로 해외로 원조되는 쌀이 군산항을 통해서 선적·출항되는 역사적이고 뜻깊은 날이다"며 "앞으로도 곡물 수

출항으로 군산항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 원조용 쌀은 군산항 출항을 시작으로 목포항(1만8000톤), 마산항(1만톤)에서 순차적으로 출항될 예정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시민 알 권리 무시 감감이 선거 우려”

정현을 익산시장 예비후보

정현을 익산시장 예비후보(사진)는 10일 '익산시민의 날'이자 '유권자의 날'을 맞이하여 기자회견을 가지고 김영배 후보의 시민단체와 언론사 주관 방송 토론회 불참 의사는 약 25만여명의 익산 유권자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고 익산시의 발전에 우려와 걱정을 표했다.
언론사 토론회의 기본 취지를 무시한 것은 "30만 익산 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였고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정치적 철학과 익산의 미래 비전을 유권자들에게 설명하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스스로 기피하고 포기하는 것은 유권자의 선택권까지 박탈한 후안무치한 행동이다"라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아울러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더불어 민주당의 지지세에 힘입어, 비합선거를 기대하는 구시대적 낡은 정치 행태이며, 구습 적폐의 표본이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에게 익산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30만 익산시민들의 현명하고 슬기로운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 예비후보는 다시금 김영배 후보에게 언론사가 주관하는 방송토론회에 참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금번 방송토론회 거부에 대해 익산시 유권자들에게 정중한 사과와 함께 하루빨리 토론회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김영배 후보에게 방송 토론회 일정과 방식 등 모든 조건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10일 '유권자의 날'과 '익산시민의 날'을 맞아 익산시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여 익산의 미래를 디자인 할 수 있도록 후보자의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김영배 후보에게 익산시장 후보에 맞는 행보를 이어갈 것을 거듭 부탁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원재료 공급 선제대응 나서

익산시, 거점시설 건립·운영체계 구축키로

익산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원재료의 익산 농식품 우선공급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지난 2017년 6월부터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거점시설 건립 및 운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 익산시는 2017년 2월부터 기 입주한 9개기업을 대상으로 관내 생산자단체와 원료공급 매칭사업을 추진한 결과 1개소는 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3개소는 계약재배를 협의중에 있으며 나머지 5개소는 익산 농식품 우선사용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원재료 공급체계 구축용역 결과에 따르면 원재료 공급체계 참여 희망기업은 전체 기업 중 72%로 조사결과가 나왔으며 2018년 현재 원재료 총사용량은 7,366톤(입주율 21% 감안 산정)으로 향후 2021년 2만7,776톤(입주율 80% 감안 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운영주체는 공공성과 지역성, 협력체계 및 산지유통 등을 고려한 결과 익산시 통합마케팅전문조직인 익산타마루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타마루조합법인')이 운영하는데 타당성이 있으며 APC기능을 포함한 신선

편의시설, 1차가공시설, 저장시설 등을 갖춘 거점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어버이날 기념행사
군산시는 10일 군산월명실내체육관에서 1,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6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사회와 이웃에 모범이 되는 효행자, 강한 어버이 및 노인복지 향상 기여자를 발굴, 표창을 통해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확산시키고자 마련됐다.
기념식에서는 효행자, 강한 어버이, 유공자 등 28명에게 각종 표창장과 상패를 수여했으며 군산시 소재 노인관련기관·단체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했다.
기념식에 이어 시후행사로 진행된 어르신 콘서트에서는 '서울의 밤'을 부른 인기 가수 한혜진 등 인기가수들이 출연해 어르신들께 즐거움을 드렸으며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군산=김정훈 기자

김동수 군산상의 회장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에

김동수 군산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10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제8·9대 이종성 회장 이임식과 제10대 김동수 회장 취임식을 열었다.
이종성 전 회장은 이임사에서 "오랜 기간 회장을 역임할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기부자님과 봉사자 여러분들과 그 밖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며 "제가 다 이루지 못한 과제는 10대 회장으로 취임하시는 김동수 회장님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동수 회장은 "현재 대내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라북도의 상황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임기 기간 동안 경제위기 극복을 통해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미래 의료계 이끄는 견인차 역할 할 것”

최두영 원광대병원장 38주년 기념식에서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최두영)은 지난 9일 외래동 대강당에서 개원 3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38주년을 맞이한 기념식에는 김도중 원광대학교 총장과 최두영 병원장, 김종운 행정처장을 비롯한 대내·외 주요 인사들과 350여명의 교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교직원들의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 치하와 함께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병원발전에 기여한 교직원 32명을 포상했다.
이에 산부인과 김병률 교수를 비롯한 9명이 병원장 공로상을, 응급의학과 이진호 전공의 외 21명이 모범상, 병원 발전에 협력한 하나하나 과와 건보 광주지역 건강관리부, 전북금원지원센터 외 7명이 특별상을 수여하는 영예를 안았다.



원광대학교병원이 지난 9일 외래동 대강당에서 개원 38주년 기념식을 연 가운데 최두영 병원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또한, 병원 발전을 위해 기금을 기탁한 원광새마을금고(4000만원), 학교법인 원광학원(2500만원)과 더불어 원광대병원 장례문화원 신축 공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준 성환건설 박우성 대표, 민병기 현장소장에 게도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최두영 병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정책 속에

서도 흔들리지 않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때"라며 "앞으로 글로벌 의료계의 허브를 목표로 해외 의료진출 사업과 해외환자 유치확대를 확대하고 대학병원으로서 의학교육과 연구분야를 활성화해 미래 의료계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익산=장양원 기자